AFC论坛／第80届SGRA论坛
第10届日本·中国·韩国国史对话的可能性
国史中的“情感”—日本·中国·韩国

AFCフォーラム／第80回SGRAフォーラム
第10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
「国史のなかの『感情』—日本·中国·韓国」

AFC 포럼／제80회SGRA포럼
제10회 일본·중국·한국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국사 속의 '감정' - 일본·중국·한국」

当天照片　当日の写真　당일 사진

2026.8.26(Wed)～8.27(Thu)

渥美国際交流財団関口GLOBAL研究会

Session 1







第10回国史たちの対話は第8回アジア未来会議内のAFCフォーラムとして、「国史のなかの『感情』―日本・中国・韓国」をテーマに開催されました。（写真左から）セッション１は金キョンテ先生（全南大学）が司会を務め、劉傑先生（早稲田大学）から開催趣旨、塩出浩之先生（京都大学）からフォーラムの趣旨が説明されてスタートしました。

第10届国史对话作为第8届亚洲未来会议框架下的AFC论坛，以“国史中的‘情感’——日本・中国・韩国”为主题举行。（照片左起）第1场由金Kyongtae老师（全南大学）主持，刘杰老师（早稻田大学）介绍了举办主旨，盐出浩之老师（京都大学）说明了本次论坛的主旨，论坛由此正式开始。

제10회 국사들의 대화는 제8회 아시아미래회의 내 AFC 포럼으로, ‘국사 속의 「감정」—일본·중국·한국’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제1세션은 김경태 선생님(전남대)이 사회를 맡고, 류 지에 선생님(와세다대)의 개최 취지,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님(교토대)의 포럼 취지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Session 1





本届已是第10届，同时也迎来10周年。本次以“情感”为主题，围绕日中韩三国国民彼此之间怀有怎样的情感，以及战争与殖民统治等过去的事件究竟对日中韩三国的国民情感产生了怎样的影响展开考察。通过了解对方国家的“情感”，同时也认识自身国家的“情感”，进一步深化了彼此之间的对话。照片为会场现场。

第10回となり、また10周年を迎えた今回は「感情」をテーマに取り上げ、日中韓の国民はお互いにどのような感情を抱いてきたのか、戦争や植民地支配という過去の出来事は、日中韓の国民感情にどのようなインパクトを与えてきたのかを考察し、相手の国の「感情」を知るとともに、自国の「感情」をも知ることを通じて対話を深めました。写真は会場の様子。

제10회이자 10주년을 맞은 이번 대화는 ‘감정’을 주제로, 한중일 국민이 서로 어떤 감정을 품어 왔는지, 전쟁과 식민지 지배라는 과거의 사건이 한중일의 국민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쳐 왔는지를 고찰하고, 상대국의 ‘감정’을 아는 동시에 자국의 ‘감정’을 아는 것을 통해 대화를 심화했습니다. 사진은 회의장 모습.

Session 1　基調講演　主题演讲　기조강연





（左から）葛 兆光先生（復旦大学）、金 澔先生（ソウル大学）からそれぞれ「感情・歴史およびアイデンティティ ―北東アジアの歴史叙述における国民偏見をいかに緩和するか」「義憤の感情体制(emotional regime)――茶山 丁若鏞の『義殺論』」と題した基調講演がありました。

（左起）葛兆光老师（复旦大学）、金澔老师（首尔大学）分别以《情感・历史与认同——如何淡化东北亚历史叙述中的国族偏见》、《义愤的情感体制（emotional regime）——茶山 丁若镛的“义杀论”》为题作了主题演讲。

(왼쪽부터) 거자오광 선생님(푸단대), 김호 선생님(서울대)이 각각「감정·역사 및 정체성—동북아시아의 역사 서술에서 국민 편견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분의 감정체제(emotional regime)——다산 정약용의『의살론』」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습니다.

Session 2「戦争と感情」《战争与情感》「전쟁과 감정」





（左から） 「戦争と感情」がテーマのセッション2は南 基正先生（ソウル大学）が司会を務め、
最初所に中村江里先生（上智大学）から「軍事暴力と感情の統制」 と題した発表がありました。

（左起）以“战争与情感”为主题的第2场由南基正老师（首尔大学）主持，
首先，中村江里老师（上智大学）以《军事暴力与情感的统制》为题作了报告。

(왼쪽부터) ‘전쟁과 감정’을 주제로 한 제2세션은 남기정 선생님(서울대)이 사회를 맡고, 먼저 나카무라 에리 선생님(조치대)이 「군사 폭력과 감정의 통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Session 2「戦争と感情」《战争与情感》「전쟁과 감정」





（左から）続いて吳 承熹先生（国立外交院）、唐 小兵先生（華東師範大学）から「戦争の感情と国家の自己再構築―韓中日における承認闘争の比較研究」「苦難・抵抗・超克：抗日戦争記憶をめぐる三つの叙事とその省察」と題した発表がありました。

（左起）随后，吴承嬉老师（国立外交院）、唐小兵老师（华东师范大学）分别以《战争情感与国家自我重构—韩中日承认斗争比较研究》、《苦难、抵抗与超越：抗战记忆的三种叙事及其反思》为题作了报告。

(왼쪽부터) 이어서 오승희 선생님(국립외교원), 탕샤오빙 선생님(화둥사범대)이「전쟁의 감정과 국가의 자기 재구축—한중일의 승인투쟁 비교연구」,「고난·저항·초극: 항일전쟁 기억을 둘러싼 세 가지 서사와 그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Session 3「相互イメージ」《相互印象》「상호 이미지」





（左から） 「相互イメージ」がテーマのセッション3は鄭 淳一先生（高麗大学）が司会を務め、最初所に金山 泰志先生（横浜市立大学）から「近代日本の対中国感情―『文明／野蛮』『清潔／不潔』という枠組み」 と題した発表がありました。

（左起）以“相互印象”为主题的第3场由郑淳一老师（高丽大学）主持，首先，金山泰志老师（横滨市立大学）以《近代日本的对华情感—“文明 / 野蛮”与“清洁 / 不洁”的框架》为题作了报告。

(왼쪽부터) ‘상호 이미지’를 주제로 한 제3세션은 정순일 선생님(고려대)이 사회를 맡고, 먼저 가나야마 야스시 선생님(요코하마시립대)이 「근대 일본의 대중국 감정—‘문명/야만’, ‘청결/불결’이라는 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Session 3「相互イメージ」《相互印象》「상호 이미지」





（左から）続いて孫 成旭先生（昌原大学）から、「現代韓国の中国認識：歴史機関と国政監査、政治の波動」と題した発表があり、セッション4の討論に先駆けて彭 浩先生（大阪公立大学）から発表に対するコメントが述べられました。

（左起）随后，孙成旭老师（昌原大学）以《现代韩国的对华认知：历史机构、国政监查与政治波动》为题作了报告。在进入第4场讨论之前，彭浩老师（大阪公立大学）对上述报告作了评论。

(왼쪽부터) 이어서 손성욱 선생님(창원대)이「현대 한국의 중국 인식: 역사기관과 국정감사, 정치의 파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고, 제4세션 토론에 앞서 펑하오 선생님(오사카공립대)이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Session 4　指定討論と自由討論　指定讨论与自由讨论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左から）セッション４では、村 和明先生（東京大学）が司会を務め、指定討論者の朴 三憲先生（建国大学）と宮間純一先生（中央大学）から発表に対するコメントがありました。指定討論者のコメントの他にも沢山の発言があり、活発な討論が行われました。

（左起）第4场由村和明老师（东京大学）主持，指定讨论者朴三宪老师（建国大学）和宫间纯一老师（中央大学）分别对报告作了评论。除指定讨论者的评论之外，与会者也踊跃发言，现场展开了热烈而活跃的讨论。

(왼쪽부터) 제4세션에서는 무라 가즈아키 선생님(도쿄대)이 사회를 맡고, 지정토론자인 박삼헌 선생님(건국대)과 미야마 준이치 선생님(주오대)이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정토론자의 코멘트 외에도 많은 발언이 있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Session 4　指定討論と自由討論　指定讨论与自由讨论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左から）自由討論の後三谷 博先生（東京大学名誉教授）より総括をいただいて、今西淳子渥美財団常務理事の閉会挨拶で第10回国史たちの対話は盛会の内に終了しました。

（左起）自由讨论结束后，三谷博老师（东京大学名誉教授）作了总结，最后由渥美财团常务理事今西淳子女士致闭幕辞，第10届“国史对话”在热烈的气氛中圆满落幕。

(왼쪽부터) 자유토론 후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도쿄대 명예교수)의 총괄에 이어, 이마니시 준코 아쓰미재단 상무이사의 폐회사로 제10회 국사들의 대화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ご参加くださった先生方、会場・オンラインでご参加くださったみなさま、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衷心感谢各位参会的老师，以及所有在线下会场和线上参加本次活动的各位！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